

## [보도자료] 국내 최대 규모, 최첨단 풀필먼트센터 - 쿠팡, 대구FC 준공식 개최

2022. 3. 24.



- 축구장 46개 규모 초대형 풀필먼트센터 준공
- 3,200억원 투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 2,500개 "지역경제 발전 디딤돌 될 것"
-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 등 최첨단 설비로 미래형 혁신물류 모델 제시

2022. 3. 24. 서울 - 쿠팡이 단일 물류시설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대구 첨단물류센터(이하 대구FC)를 준공하고 기념행사를 연다.

쿠팡은 24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쿠팡 박대준 신사업부문 대표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 대구FC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수 대구시의회의장,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장 등 총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이번에 준공한 대구FC는 건축연면적 33만 제곱미터(약 10만평)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축구장 46개 넓이와 맞먹는 초대형 메가 풀필먼트 센터(Mega Fulfillment Center)다. 인천, 고양, 동탄 등 전국 각지의 쿠팡FC 가운데 가장 크며, 단일 물류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대구FC는 2019년 5월 최초 설계를 시작, 2020년 2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 승인을 받아 이달에 준공식을 열게 됐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22개월이 걸렸다. 이번 공사에 대구지역업체 참여율은 76%에 달한다. 대구FC는 오는 4월 말부터 첨단 물류설비 테스트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쿠팡은 대구FC에 최소 3,2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국내 최고의 최첨단설비를 갖춘 물류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FC는 AI 및 빅데이터와 함께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상품 관리와 배송 동선을 최적화하고, 친환경 물류설비를 갖춘 미래형 혁신물류센터로 운영된다.

쿠팡 관계자는 "대구FC는 남부권을 아우르는 전국 단위 물류시스템의 핵심 거점"이라며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 권역을 확장하게 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해외 진출에도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FC는 대구 지역에 25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 쿠팡은 여성과 중장년층 등을 중심으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할 계

획이다.



본격 운영이 시작되면 대구FC는 전국의 쿠팡 물류 네트워크와 연계해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비즈니스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20년 4월 쿠팡이 대구시와 협력해 진행한 ‘힘내요 대한민국’ 기획전은 대구 지역 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12% 성장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구FC는 대구국가산업단지 주변 기업뿐만 아니라 대구 및 경북권 소재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시켜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유통물류산업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및 영남권의 로켓배송 서비스 또한 개선되어 보다 우수한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 “대구시 및 여러 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에 대구 첨단물류센터 준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쿠팡은 전국 최대, 최첨단 타이틀에 걸맞은 물류 인프라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쿠팡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대구경제 활성화의 효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과 박대준 쿠팡 대표(일곱번째)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과 박대준 쿠팡 대표(다섯번째)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시 달성군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 대구 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사진 가운데)과 박대준 쿠팡 대표(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mailto:media@coupang.com)